

“의사 진단 돕는 AI패키지로 건강검진 시장 공략”

김현준 뷰노 대표

“연간 10조원 규모로 성장한 건강검진센터는 몰려드는 수검자에게 정확하고 빠른 검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뷰노의 인공지능(AI) 솔루션은 적은 수로 제한된 시간에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의료진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김현준 뷰노 대표(사진)는 “최근 안저(눈) 판독 및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분석 솔루션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회사의 1단계 개발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뷰노는 AI 의료기기 분야 선두주자로 꼽힌다. 김 대표는 삼성중합기술원 소속 이던 이예하 뷰노 이사회 의장, 정규환 최고기술책임자(CTO)와 함께 2014년 말 창업했다. AI가 의료진의 영상 판독을 돕는다는 새로운 기술이 관심을 끌며 누적 투자 200억원을 유치했다. 최근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건강검진센터 진출로 매출 본격화 김 대표는 회사의 첫 제품인 골연령 진단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뇌 자기공명영상(MRI) 분석, 흉부 엑스레이 분석, 흉부 CT 분석, 안저 영상 분석, 실시간 판독용 작성 프로그램 등 5가지 제품은 모두 건강검진센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했다.

“상급 종합병원 임상 의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다 의료보험 수가 문제도 걸림돌로



흉부 CT 솔루션 식약처 허가 상장 위해 기술성 평가 마쳐 200억원 투자유치도

인공지능 이해도 정확도 높여 “AI 의료기기 시장 선도할 것”

작용해 진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건강검진센터는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가 있었죠. 건강검진센터에선 수많은 영상 판독, 엑스레이, CT 사진 속에서 빠르게 이상 소견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뷰노의 AI 솔루션이 출시 전부터 국내 대형 건강검진센터의 관심

뷰노가 개발한 의료 인공지능 제품

핀더스AI	망막 부분 정상·비정상 판독, 12가지 질환 판별
본에이지	빠나이 검사위험손뼉 엑스레이 사진 분석
딥브레인	뇌 자기공명영상(MRI)으로 퇴행성 뇌질환 발병 여부 분석
체스트엑스레이	가슴 엑스레이 분석해 질환 판독 보조
딥에이에스알	영상 판독문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링CT AI	가슴 컴퓨터단층촬영(CT) 분석해 폐 결절 검출

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매일 쏟아지는 진단 영상의 1차 판독은 주로 일반의가 맡는다. 1차 판독 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영상은 전문의에게 전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뷰노의 흉부 엑스레이 분석 솔루션은 영상의학 수련의, 비흉부 영상의학 전문의, 흉부 영상의학 전문의 등 다양한 의사군에서 판독 정확도를 높여준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얻었다.

뷰노는 올해를 매출을 본격화하는 원년으로 선언했다. 올해 매출 목표는 50억원이다. 김 대표는 “세계 AI 의료시장은 연간 8조원, 국내는 3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뷰노가 국내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AI의료기기 글로벌 1위 기업 될 것 건강검진센터 1차 목표 3삼은 뷰노는 2단계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제품군을 바탕으로 뷰노

를 AI 의료기기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이끌겠다는 게 김 대표의 포부다.

그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국산 AI 의료기기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방사선학기기전시회(RSNA)에 AI 특별관이 신설됐는데 이곳에선 의료기기의 변방이던 한국 기업들이 주류를 이뤘다. 의료기기 강국 일본에서도 “한국의 AI 의료기기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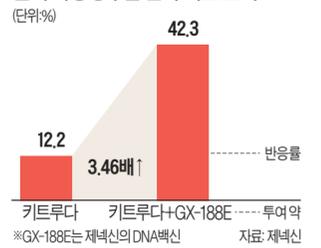
손슨앤드손슨, 제너럴일렉트릭(GE), 필립스, 지멘스 등 기존 의료기기 시장을 선도해온 전통 기업들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김 대표 주장이다. AI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유망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구글과 GE를 섞은 글로벌 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시장 조사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제품을 의료 현장에 내놓아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제넥신 “자궁경부암 DNA백신 면역항암제 효과 3배 높였다”

美 암학회서 중간결과 발표
“환자 26명 중 11명 효과”
“시장성 판단 신중해야” 평가도

말기 자궁경부암 환자 치료 효과



제넥신의 자궁경부암 DNA백신 ‘GX-188E’가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한 면역항암제와 병용하면 항암 효과가 크게 높아진다는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다. 일각에서는 아직 성공을 판단하기에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넥신은 지난 28일 온라인으로 열린 미국암학회(AACR)에서 GX-188E와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병용 임상 2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자궁경부암 말기 환자 26명에게 두 약물을 함께 투여한 결과 4명의 환자는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고 7명의 환자는 종양 크기가 작아졌다. 우정원 제넥신 부사장은 “종양 크기가 줄어든 비율을 가리키는 객관적 반응률(ORR)이 42.3%로 키트루다 단독 투여의 12.2%보다 3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은 외과적 절제,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 표준 치료가 듣지 않는 이들이었다. 키트루다는 2018년 자궁경부암 2차 치료제로 허가받았지만 ORR이 매우 낮다. 암조직에서 면역관문 단백질 PD-L1이 발현되지 않는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것도 한계다. MSD가 키트루다의 효능을 높일 병용 치료제를 찾고 있는 이유다. 우 부사장은 “GX-188E는 키트루다에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던 PD-L1 음성 환자에게도 효과를 보였다”고 했다.

GX-188E는 체내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

화해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에 감염된 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재발 위험을 줄인다. 성영철 제넥신 회장은 “자궁경부암은 세계에서 매년 50만 명이 발병하고 25만 명이 사망하는 질환”이라며 “키트루다와 GX-188E 병용 요법을 2차 치료로 허가받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병용 임상 중간 결과에 대해 한 바이오기업 대표는 “임상이 마무리돼야 확실히 판단할 수 있었지만 매우 긍정적인 데이터”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된 데이터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면 키트루다 단독 투여가 아니라 키트루다와 다른 약물의 병용 투여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MSD는 2018년부터 미국, 유럽 등에서 600명의 자궁경부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파클리탁셀 등 화학항암제와 키트루다의 병용 임상 3상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임상 결과가 잘 나와 표준 치료가 변경되면 GX-188E 병용 요법의 효능도 재평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우 기자 freeu@hankyung.com



천연 기능성 요구르트 개발한 에코비오스

당뇨 환자도 먹는다... “달지 않은 요구르트 즐기세요”

영지버섯 추출물 사용한
요구르트 ‘이비퍼스트’
구매자 90%가 2030 여성

“천연재료 기반 건강식품 선보일 것”

“당뇨병 환자도 먹을 수 있는 요구르트를 만들어보자”는 게 에코비오스 설립 계기였습니다.”

30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만난 조항희 에코비오스 대표(사진)는 에코비오스 설립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에코비오스는 2017년 5월 설립된 천연 요구르트 전문 업체다.

조 대표는 전남대 생물학 석사와 경상대 수의학 박사학위를 딴 뒤 바이오기업

에서 8년간 연구원으로 일했다. 항암과 당뇨병 치료 관련 연구를 주로 했다.

조 대표는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건강 기능식품에 눈을 땀다. 그중에서도 주목한 것이 요구르트였다. 흔히 건강식품으로 분류되는 요구르트는 대부분 설탕 함량이 높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다.

시정성을 확인한 그는 “기존 요구르트와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겠다”고 작정했다. 천연원료를 발효한 100% 자연산 요구르트를 기획했다. 3년간의 기술개발을 거친 조 대표는 회사를 나와 에코비오스를 차렸다.

2017년 9월 첫 제품 ‘이비퍼스트’가 나왔다. 항암과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는

버섯을 원료로 한 제품이다. 버섯에서 추출물을 낸 뒤 발효시켜 요구르트를 완성하는 방식이다. 주로 쓰는 것은 영지버섯이다.

“버섯은 맛이 없다”는 세간의 인식을 고려해 일부러 귀여운 버섯 캐릭터와 디자인을 포장에 적용했다. 어린이와 다이어트하는 여성을 상대로 온라인 마케팅을 했다. 계산은 들어맞았다. 2030 여성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며 구매에 나섰다. 현재 에코비오스 전체 구매자의 90%가 젊은 연령대 여성이다.

이후에 선보인 분말제품 ‘이비퍼스트’ 역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액상 형태에서 휴대가 어려운 이비퍼스트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다.



영지버섯 추출물로 만든 요구르트 ‘이비퍼스트’.

에코비오스는 지난해 200%의 매출 성장을 나타냈다. 조 대표는 차기 제품으로 비만환자를 위한 천연 요구르트를 개발하고 있다. 지방간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성 요구르트다. 해외 판로도 지속적으로 개척 중이다. 현재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베트남 현지 매장에도 입점한다.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과 수출을 협의 중이다.

조 대표는 “요구르트를 시작으로 천연 재료 기반의 다양한 건강식품을 선보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엠디문, 오스트리아 대학과 ‘엑소솜’ 연구

(세포 신호전달 물질)

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속도

신약개발기업 엠디문이 우수약품 제조관리기준(GMP)에 부합하는 엑소솜 생산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파라셀서스의과대학과 공동연구에 나선다. 엠디문은 2021년 임상 진입을 목표로 후기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엠디문은 지난 29일 파라셀서스의과대학과 압축엑소솜 GMP 생산공정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엔 배신규 엠디문 대표, 헐버트 레지 파라셀서스의과대학 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온라인으로 열렸다.

엑소솜은 세포가 분비하는 신호전달 물질이다. 나노입자인 엑소솜은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다. 생체 정보를 다른 세포로 옮기는 특성으로 인해 엑소솜 기반 치료제는 차세대 치료제 중 하나로 꼽힌다. 엠디문은 엑소솜과 같은 세포외소포체를 대량 생산하는 ‘바이오드롭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엠디문은 파라셀서스의과대학의 마리오 지모나 박사를 최고생산책임자(CMO)로 영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임상용 세포은행을 GMP 등급으로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배 대표는 “파라셀서스의과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해 바이오드롭 플랫폼 기술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임상 개발을 통해 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언택트(Untact) 시대

영업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이메일 마케팅을 위한 ‘뉴스레터’ 제작 플랫폼

CaaS를 검색해보세요!



문의 | 02-3786-0188

